



한국사람 만큼 소나무를 사랑하는 민족은 드물 것 같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도 소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이다

# 소나무, “푸른 바늘에 구슬을 꿰었나요”

우리학교 꽃 이야기(18)

안범철 자연사박물관 학예연구자

한국사람만큼 소나무를 사랑하는 민족은 드물 것 같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도 소나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애국가에도 남산의 소나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시나 그림에도 소나무는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었다. 조선전기의 대학자이자 생육신인 김시습이 3살 때 소나무에 대한 아래와 같은 시를 썼다고 한다.

桃紅柳綠三月暮(도홍유록삼월모)  
珠貫靑針松葉露(주관청침송엽로)  
“복숭아꽃은 붉고 버들은 푸르러요  
3월도 거의 지나갔어요  
푸른 바늘에 구슬을 꿰었나요 솔잎  
에 종종 이슬이 맺혔어요 이슬이 반짝  
눈물 글썽였어요”

3살의 신동 김시습의 눈으로 본 소나무에는 푸른 바늘이 눈에 띄었던 것 같다. 늘 푸른 나무의 상징인 소나무는 누가 뭐라 해도 바로 우리 민족의 나무인 것이다. 소나무로 만든 집에서 태어나 소나무로 만든 관에 들어가 죽는다는 옛 말이 있을 정도로 소나무는 우리 문화에 오랫동안 깊숙

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리 학교에도 정문부터 학교 곳곳에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중앙도서관 앞에도 큰 소나무가 3그루 이상 심어져 있고, 본관 앞에도 오래 된 소나무가 있다. 선비 정신을 대변하는 나무로써 우리 학교에서도 소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나무일 것이다. 소나무는 우리의 역사와 함께한 시간이 많은 것처럼 사용방법도 매우 다양하다. 우선 소나무를 생각하면 송편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소나무의 은은한 향을 머금은 추석의 떡거리에도 사용되며, 과거에는 소나무의 속껍질을 말렸다가 송기떡을 만들어 구황식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또 하나는 송화가루라고 하여 소나무의 꽃가루를 모아 다식을 만들어 먹기도 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사용 방법은 건축물의 재료이다. 몇 년전 복원된 송례문에 사용된 목재도 소나무인데 소나무 중에 굴곡이 없고 수령이 오래되어 일정한 두께가 있는 소나무를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흔히 금강송이라고 하는데 식물학적으로 금강송은 소나무의 형태적인 차이일 뿐 다른 종은 아니다. 소나무의 진액은 송진이라고 하며 공업용, 약제로도 사용된다. 또한 송진이 돌처럼 굳어지면 호박이라는 보석이 되기도 한

다. 한복에 사용된 고급 단추는 이 호박으로 장식을 하였다. 소나무의 가지는 조명용 불로 사용되었는데, 이를 송명 또는 관솔불이라고 하였고, 소나무를 태워 나오는 그을음에 아교를 섞어서 먹을 만들었는데 이를 송연묵이라 하며 먹중에 최고 상품으로 인정된다. 소나무와 관련하여 중요한 식품도 생산되는데 바로 송이버섯이다. 소나무뿌리에 있는 균과 공생을 하기 때문에 소나무 숲에서만 번식할 수 있는 버섯이며, 송로버섯과 함께 귀한 버섯으로 인정받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소나무속에는 3개의 아속이 있으며 120종 이상이 속해있는 큰 분류군이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3종류의 소나무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나무는 잎이 2장이고, 잣나무는 잎이 5장이다. 그리고 일본에서 재배한 리기다소나무는 잎이 3장으로 일단 보더라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그밖에 잣나무와 유사한 눈잣나무, 섬잣나무가 있고, 해송이라 불리는 곰솔도 있다. 곰솔은 소나무에 비하여 잎이 짧은 것이 특징이다. 그밖에 금강송, 적송, 백송 등이 있는데 대부분 소나무나 곰솔을 기준으로 되는 변종 또는 생태적인 환경에 의한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이 되고, 이름이 붙여

진 것은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이라는 방증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소나무가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은 아니다. 한국전쟁(6.25)이 지나고, 보릿고개가 없어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산야는 매우 황폐해 있었다. 민가 인근의 산에는 나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60~70년대에 새마을운동과 함께 산림녹화사업이 시행되었고, 우리나라 산에는 소나무가 일렬로 줄 맞추어 심어지기 시작했다. 그 덕에 우리나라 산에는 줄 맞춰서 살고 있는 비슷한 연령의 소나무가 확일적으로 자라고 있다. 우리나라 같이 온대와 아한대가 섞여 있는 산에는 참나무와 같이 잎이 넓은 나무가 더 적당하지만 우리민족의 기상과 선호도가 감안되어 섞여서 소나무가 선택되어 지금도 조림지역에는 소나무가 줄 맞추어 심어지고 있다. 소나무는 조금 더 추운 북한지역에서 보다 잘 자랄 수 있는 나무이다. 소나무를 좋아하는 민족적 감성도 중요하지만 기후가 점점 더워지는 시점에서 보다 우리나라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소나무를 조금 더 귀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인 듯하다.

## 참여마당

김휘진  
(경제학 2010)



## 소수자 문제 해결, 내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

날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 누군가에게 자기를 무시하지 말란 뜻으로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이다. 이처럼 인간은 주위 시선에 민감한 동물이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소설 ‘투명인간’에서 주인공 그리핀은 색소결핍증을 앓아 남들과 다른 외모를 지녔고, 이런 다름을 향한 주변의 시선에 고통 받는다. 그는 투명인간이 되어 남들과 다름으로부터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투명인간도 남들과 다른 존재였다. 소수자에서 벗어나려 투명인간이 되지만 여전히 소수자였다. 그리핀을 사회적 소수자로 만든 것은 무엇일까? 바로 대중의 시선이다. 자신과 다른 소수자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편견과 차별로 가득하다. 우리주변에 사회적 소수자는 얼마든지 있다. 우연히 새터민 한분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다. 인천에 사는 새터민 박태수(42)씨는 새터민들을 선임견을 갖고 보거나 무시하지 않고, 자신하고 동등하게 생각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 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주변의 편견과 차별(22%)이 남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한다. 그들은 경제적 문제(10%)나 언어문제(9%)보다 주변의 편견과 차별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했다.

### 소수자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은 편견과 차별로 가득하다. 우리주변에 사회적 소수자는 얼마든지 있다

대중이 소수자를 배척하는데 소수자가 어떻게 타인과 단절되지 않고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들이 사회적으로 단절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가 왜 굳이 소수자들을 도와야 하나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답은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모든 소수자가 다수자가 되기 위한 노력이다. 과거 여성은 소수자에 불과해 투표권이 없었지만 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남성과 같은 투표권을 가지고 있다. 소수자인 이 유리 방임해 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 취지에서 박 씨에게 소수자를 돕기 위해서 어떤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할지 물었다. 그가 들려준 대답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대답의 요지는 ‘내가 바뀌어야 사회가 바뀐다’는 것이다. 그는 소수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걸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진실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했다. 내가 바뀌지 않은 채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해도 그들의 실상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메이저리그 LA다저스의 투수 클레이튼 커쇼는 20대 중반에 메이저리그를 통틀어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의 선수다. 커쇼는 매년 비시즌 기간에 잠비아로 떠나 봉사한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본다. 하지만 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하지 않는다. 그저 크리스천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려 노력할 뿐이다’라고 말한다. 이 같은 실천으로 보여주는 삶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 ▶1면에서 이어짐

루쉰은 병의 고통과 생명의 사그라짐을 뛰어넘어 해학과 웃음으로 마지막 불꽃을 활활 태우면서 막을 내렸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보존하고 사람을 만드느라 힘을 다 쓴 뒤에 지치고 여윈 채로 죽어가는 여와(女媧)(「하늘을 땀질한 이야기」), 사냥감을 모조리 활로 쏘아 잡아먹은 뒤에 먹을 거리를 찾아 헤매는 생활 무능력자가 되어버린 예(羿)와 바가지를 굶고 신경질을 부리다가 금기야는 몰래 예의 선약을 훔쳐 먹고 달로 가버린 항아(嫦娥)(「달나라로 도망친 이야기」), 백성과 유리된, 엉뚱한 탁상공론에 빠진 벼슬아치와 달리 실천적이고 도덕적(금욕적)인 우(禹)(「홍수를 막은 이야기」), 충정이나 절개니 예의도덕을 지키려다 굶어죽은 백이(伯夷)와 숙제(叔齊) 형제(「고사리를 캔 이야기」), 500년 전에 도적에게 죽임을 당한 사내를 다시 살려놓았더니 도리어 옷을 벗어달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호루라기를 불어서 순경을 부르는 장자(莊子)(「죽음에서 살아난 이야기」) 등



루쉰은 어둡고 부조리하고 절망적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리얼한 ‘비판’(절망에 반항)과 냉소적인 ‘풍자’와 더불어 농익은 ‘의식’과 ‘위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

### 중국 현대문학이란 커다란 나무를 심을 수 있었던 데는 ‘민족혼(民族魂)’ 루쉰이라는 영원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의 이야기가 재탄생한 것이다. 《고사신편》에서 루쉰은 어둡고 부조리하고 절망적인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서 리얼한 ‘비판’(절망에 반항)과 냉소적인 ‘풍자’와 더불어 농익은 ‘의식’과 ‘위트’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였다. 이 위대한 작가의 예술적 혼과 지적인 고뇌는 2000년의 가오싱젠

(高行健, 1940~)에게, 민중에 대한 사랑과 소명의식은 2012년의 모옌(莫言, 1955~)에게로 고스란히 계승되었다. 세계문학의 울창한 숲에 그들이 중국 현대문학이란 커다란 나무를 심을 수 있었던 데는 ‘민족혼(民族魂)’ 루쉰이라는 영원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다.

## 2015학년도 법무대학원 전기 모집

1. 모집학과 및 전공(야간)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공공법학과	입법전공, 공법전공
	중국법학과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학과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학과	조세법전공
특별과정	한·영법률 번역과정 (법률영어, 법률번역, 법률작문, 미국법입문, 한국법입문)	
수업시간	매주 월요일, 화요일 19:00~21:50 ※ 토요일 주간강의 개설예정	

2. 전형방법 : 면접

3. 전형일정

구 분	일반전형
원서교부 및 접수	2014. 11. 17(월) ~ 12. 5(금)
전형일	12. 6(토) 14:00
합격자 발표	12. 9(화) 16:00
등록예치금 납부	12. 10(수) ~ 12. 12(금)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0@khu.ac.kr)
- 합격자발표는 본 대학원 홈페이지 (interlaw.khu.ac.kr)에서 확인

4. 제출서류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본 대학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대학교(학부)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홈페이지 참조(interlaw.khu.ac.kr)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